

조근호 초대전

31일까지 국윤미술관



'몽치산수-여름산'

무등산이 한눈에 '몽치산수'

조근호 작가는 오랫동안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대표 시리즈인 '도시의 창' 연작은 창이편과 저편의 이야기가 서로 얹히고, 소통하며 다양한 화면을 만들어냈다.

그의 작업실 창밖으로는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20년 넘게 무등산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독 지난해 무등산이 마음에 들어왔다. 코로나 19라는 상황, 새로운 작업에 대한 고민 등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그 때 무등산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무게감, 부피감, 몽뚱함 등을 나타내는 '몽치'였다. 무등산 속에는 계곡도, 나무도 있겠지만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였다.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 기획 초대전으로 열리고 있는 '몽치산수' 전(31일까지)에서 만나는 작품들이 고민의 결과물이다. 한번호 화제(畫題)로 생각하지 못했던 무등산은 '몽치산수'의 모태이자, 소재가 됐고 자연 심상과 도시 일상이 하나로 어우러진 작품이 탄생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윤미술관이 바로 무등산 자락에 등

지를 틀고 있음은 또 다른 인연이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다양한 면 분할을 통한 독특한 화면구성이 인상적이다. '몽치산수-무등제색' '몽치산수-여름산' 연작은 정제되고 간결한 산의 형제와 풍경,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졌다. 멀리 보이는 무등산과 도청의 은행나무, 봄날의 화사한 꽃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오월 푸르른 날에', 강렬한 검은 반달이 인상적인 '달을 탐하다', 기존 '도시의 창' 느낌의 소재를 '몽치산수'로 재해석한 '여름' 등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기존 작품보다 추상성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신작들은 자유로운 화면구성과 배치로 신선함을 전달한다.

색다른 조형성과 함께 그의 작업에서 돋보이는 건 화려한 색채다. 작업 초창기, 바위같은 묵직한 느낌의 무채색을 즐겨사용했던 그는 봄날의 '살랑거림' 같은 느낌을 화면에 담고 싶어 이후 색채에 변화를 줬다. '몽치산수'에서는 '도시의 창' 연작보다 색의 순도를 높여 생동감을 극

대화시켰다. 오방색을 염두에 두고 감정색을 바탕에 깔아 작품의 무게 중심을 잡은 후 초록, 주황, 노랑 등 다양한 색감들을 적절히 배치해 화사한 화면을 선사한다.

마치 '일기를 쓰듯', 일상에서 소재를 찾는 그에게 '몽치산수'는 수많은 주제로 확장될 터다. 조 작가는 "산과 도시 등 눈에 보이는 형태 등으로 몽치산수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야기, 철학, 생각의 몽치들도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평론가는 전시도록에서 그의 최근 작품에 대해 "다른 듯 같은 천지간의 공존요소들을 본래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재해석하면서 조화롭게 펼쳐낸 그림들"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조 작가는 지금까지 2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5회 광주신세계 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선과 색, 한국전업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리꾼 윤상호 초청

강산제 '심청가' 공연

16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5시 진악당에서 소리꾼 윤상호<사진>를 초청해 강산제 '심청가' 조상현 바디를 공연한다.

윤상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판소리 경연대회 대동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정읍시립국악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심청이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삼백석 쌀에 팔려 인당수에 빠진 후 남행 용궁에서 객씨부인과 상봉하는 대목부터 심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들려줄 예정이다.

고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며 현재 정읍시립국악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주가 맡는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선착순 190명을 모집. 무료관람.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



'alaredde a anjwa'

프랑스 판화작가 뒝 티브흐 초대전

11월 4일까지 전남대박물관

전남대박물관이 프랑스 판화작가 뒝 티브흐의 초대전을 오는 11월 4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뒝 티브흐는 플라스틱판과 솔벤트를 활용한 '솔바노플라스틱(Solvanoplastie)'이라는 독창적인 판화기법을 발명해 제5회 국제판화비엔날레와 세인트 모흐 그래픽아트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루앙의 순수예술학교 미술교수로 재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고대 역사에서 혼성 이미지'라는 주제로 펼쳐

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판화라는 매체 특성과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오리지널 판화의 우수성에 디지털 기법을 매칭해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대 도시의 흔적을 프리즘에 담아 회화로 엮어내고 다시 판으로 전사시킨 판화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뒝 티브흐 작가만의 '솔바노플라스틱' 판화 작품들이 '한지'에 표현되고 있어 프랑스와 한국, 고대와 현재의 조화가 기대된다.

문의 062-530-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노로 만나는 베토벤 교향곡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 16일 금호아트홀

깊어가는 가을,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회장 김정아) 정기연주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19년 선보인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 I'에 이은 두번째 시리즈로,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연기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5번 4악장'을 시작으로 '교향곡 8번 1악장', '교향곡 7번', '교향곡 9번 4악장'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4명의 연주자가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며, 웅장한 사운드로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에 담긴 인류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대에는 서운진·함지연·박규연·김선주·이은경·송민경·송지영·김민화·최안수·김정아 등이 오른다.



김아연



최안수

한편 한국피아노학회(이사장 장혜원)는 지난 1991년 창립된 전문 피아니스트들의 음악단체로 정기 연주회와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음악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CC 시민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

24일 문화전당 예술극장1...그리그·로시니 곡 연주

ACC 시민오케스트라(사진)가 클래식 선율과 함께 가을의 낭만을 선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웅신)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오는 24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공연을 펼친다.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문화전당의 지역협력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창단 6년째를 맞았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김영연과 함께 로시니의 '도둑까지', 에드바르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니 이비비' 등 대중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ACC는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의 아마추어 음악가 40~50명을 시민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선발한다. 전문 음악가 지도와 4개 월 가량의 연습을 거쳐 연주회를 선보인다. 관람은 무료이며 ACC 누리집에서 입장권을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62-601-461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날, 슈베르트를 노래하다

'양방블 온'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월요 콘서트 이번 순서는 '양방블 온'의 슈베르트를 노래하며'가 진행된다. 1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이며, 아니운서 박광신 씨가 해설을 맡는다.

슈베르트는 19세기 초반 소규모 살롱무직이 유행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작곡가로, 낭만주의 어법 안에서 고전성을 짚게 드린 작품을 창작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피아노와 플루트 듀오를 위한 시든 꽃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802', '보이스, 첼로, 피아노에 의한 가곡 '강위에서', 작품번호 943',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작품번호 898'이다.

'양방블 온'은 광주·전남 지역 중견 연주자들을



이철민

중심으로 창단됐다. 이번 연주자들은 광주·전남권 주요 음악대학 전임교수진이 주축이며, 관현악 주자들은 광주시향 수석 단원을 포함해 지역 내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은 박재연, 구재향, 이철민, 이준성, 최지혜, 이지연, 오재경 등이 출연한다. 선착순 50명 무료관람이며 문화N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70-7924.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